

조선

선사의 수가 절반 이상 사라져야 운임은 상승할 것

2013. 5. 30

조선/기계
Analyst 박무현
02.3779-8967
bossniceshot@etrade.co.kr

연비의 상대 경쟁으로 세계 해운사의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든 것

Eco-ship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선대의 경쟁력은 급격히 훼손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해운사의 절반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. 현재 해운시황 약세의 주된 요인은 bunker 가격과 운임간의 달라진 방향성이며 이로 인해 Slow steaming 전략은 더 이상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. Eco-ship 수요가 늘어날수록 운임 하락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. 이러한 시황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운사의 수는 크게 감소될 것이다. 경쟁력 없는 수많은 선사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, 선사의 Eco-ship 발주량은 과거보다 늘어날 것이므로 글로벌 선박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결국 연비의 상대경쟁의 결과로 해운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 이후에서야 운임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. 경쟁하는 선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운임을 올리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.

Scorpio tankers를 보면 Eco-ship 싸이클을 볼 수 있다

당사 리서치센터는 지난해부터 Eco-ship 수요를 전망함에 있어 과거 이중선체 탱커선 투자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. 전체 선박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, 단일선체 탱커선은 이중선체선에 의해 모조리 교체되었다.

바로 Scorpio tankers의 공격적인 Eco-ship 투자가 그러하다. 지금 인도받는 Eco-ship 1척은 10년 후에는 10척의 선대로 늘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.

Scorpio tankers는 3년 전만 해도 16척 이하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, 지난 2년간 43척의 Eco-ship을 한국 조선소에 발주했다. 이 중 현재까지 8척을 인도 받았다. 자신의 선대 규모의 두 배 이상의 Eco-ship을 발주한 것이다. 이 선박들은 내년이면 모두 인도될 것이다. Scorpio tankers는 8척의 Eco-ship 운항을 통해 올해 1분기 실적은 대폭 개선되었다.

Eco-ship cycle의 시작으로 모든 해운사가 다 같이 살아남기는 어려워졌다. Eco-ship 투자에 적극적이며 선대의 연료효율성을 주목하고 있는 선사는 해운시황 약세에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. 벌어들인 돈으로 연비가 더욱 개선된 Eco-ship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. 연비의 상대경쟁으로 선박의 교체주기는 과거보다 짧아지게 될 것이다.

이러한 과정을 통해 살아남는 선사의 수는 줄어들겠지만, 선사들의 발주량은 과거보다 늘어나게 된다. 약 10년 후 선사의 수가 크게 감소된 이후 운임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.

해운시황 약세에도 상선 발주 소식은 늘어나고 있다. 중요한 것은 발주의 근거이며 한국 조선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

[표1] Scorpio Group Fleet Listing

Scorpio tankers' Fleet	All Fleet		Of Eco-ship		Proportion of Eco-ship
	In Service	Orderbook	In Service	Orderbook	
52	18	34	9	34	82.7%

자료: Clarksons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무현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종목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

업종투자등급 guide line: 투자기간 6~12개월,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(Overweight/ Neutral/ Underweight)

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(Buy/ Hold/ Sell)에서 4단계 (Strong Buy/ Buy/ Marketperform/ Sell)로 변경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	적용기준(향후12개월)
Sector(업종)	Overweight (비중확대)	
	Neutral (중립)	
	Underweight (비중축소)	
Report(기업)	Strong Buy (강력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50% 이상 기대
	Buy (매수)	절대수익률 기준 15%~50% 기대
	Marketperform(시장수익률)	절대수익률 기준 -15%~15% 기대
	Sell(매도)	절대수익률 기준 -15% 이하 기대
	N.R.(Not Rated)	등급보류